



축제의 가면을 쓴 무기쇼가 전세계적인 유행을 타고 한반도에도 상륙했다.

국가와 기업, 무기상인, 지역 커뮤니티가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국가안보를 위해, 한미동맹강화를 위해, 첨단과학발전에 헌신해온 기업을 위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아이들 현장학습을 위해, 기타 모든 것들을 위해, 쏠쏠쇼가 열린다.

에어쇼, 헬기레펠쇼, 탱크쇼, 기관총쇼, 미사일쇼, 파일럿체험쇼, 지뢰쇼, 화생방쇼, 테러진압쇼, 야간침투쇼, 군복쇼, 건빵쇼,
온갖 쏠쏠쇼...

폭탄이 터질 때마다, 기합이 울려 퍼질 때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온다.

“앗싸, 부라보!”



작가
인물
사진 ©노순택 suntag.net

그래, 앗싸, 부라보...
어쩌면 ‘앗싸, 부라보’였을 것이다.
문제의 사관생도가 F15K라는 좋은 기계에 올라,
빨간단추를 누르며 외쳐야 할 단어는
“앗싸, 부라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지 모른다.

폭격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고뇌’였다.
가상폭격의 관람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심란함’이었다.



모두가 유죄인 곳에서는, 아무도 유죄가 아니다.
말하자면 집단적인 유죄의 고백은 범죄자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실행 가능한 가장 탁월한 방어수단이며,
그 범죄의 거대한 규모는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데 대한 가장 탁월한 변명이다.

- <폭력의 세기>, 한나 아렌트



좋은 총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살인을 전제로 태어난다.

좋은 총은, 사람을 잘 죽이는 총이다.

좋은 폭격기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대량살상을 전제로 태어난다.

좋은 폭격기는, 사람들을 잘 죽이는 폭격기다.



“F15K, 넌 참 좋은 기계인데 요즘은 살인기계로 보여.
나는 심란해. 내가 이 기계를 몰게 될 수 있을 텐데,
실수로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기계에 관한 명상
좋은 기계에 관한 명상
그것이 살인 기계가 될 수도 있다는 명상
이 심란한 명상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있을까요?

세계 10대 **전쟁기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순위	기업명	국가	2015 무기판매액 (단위 : 미화 백만불)
1	Lockheed Martin	미국	36,440
2	Boeing	미국	27,960
3	BAE Systems	영국	25,510
4	Raytheon	미국	21,780
5	Northrop Grumman	미국	20,060
6	General Dynamics	미국	19,240
7	Airbus Group	유럽	12,860
8	United Technologies(UTC)	미국	9,500
9	Finmeccanica	이탈리아	9,300
10	L-3 Communications	미국	8,770

방위산업전시회 = 살상무기전시회

세계 10대 **전쟁기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세계 100대 무기생산기업의 무기판매액은
무려 3,707억 달러(약 420조 원!)

이중 절반(51.6%) 정도인 1,914억 달러가 세계 10대 전쟁기업이 거두어들인 수익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SIPRI

이들은 필연적으로 안보 불안과 분쟁을 먹고 자랍니다.

군사적 긴장이 높을수록, 정치 상황이 불안정할수록 전쟁기업에게는 기회의 땅이 되지요.

매출 3위 영국의 BAE Systems, 매출 4위 미국의 Raytheon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 진압을 위한 무기를 판매했고, 예멘에 무차별적으로 떨어진 폭탄은 2천명의
사망자, 4천명의 부상자, 20만 명의 난민을 낳았습니다.

방위산업전시회 = **살상무기전시회**



사드, 트러블메이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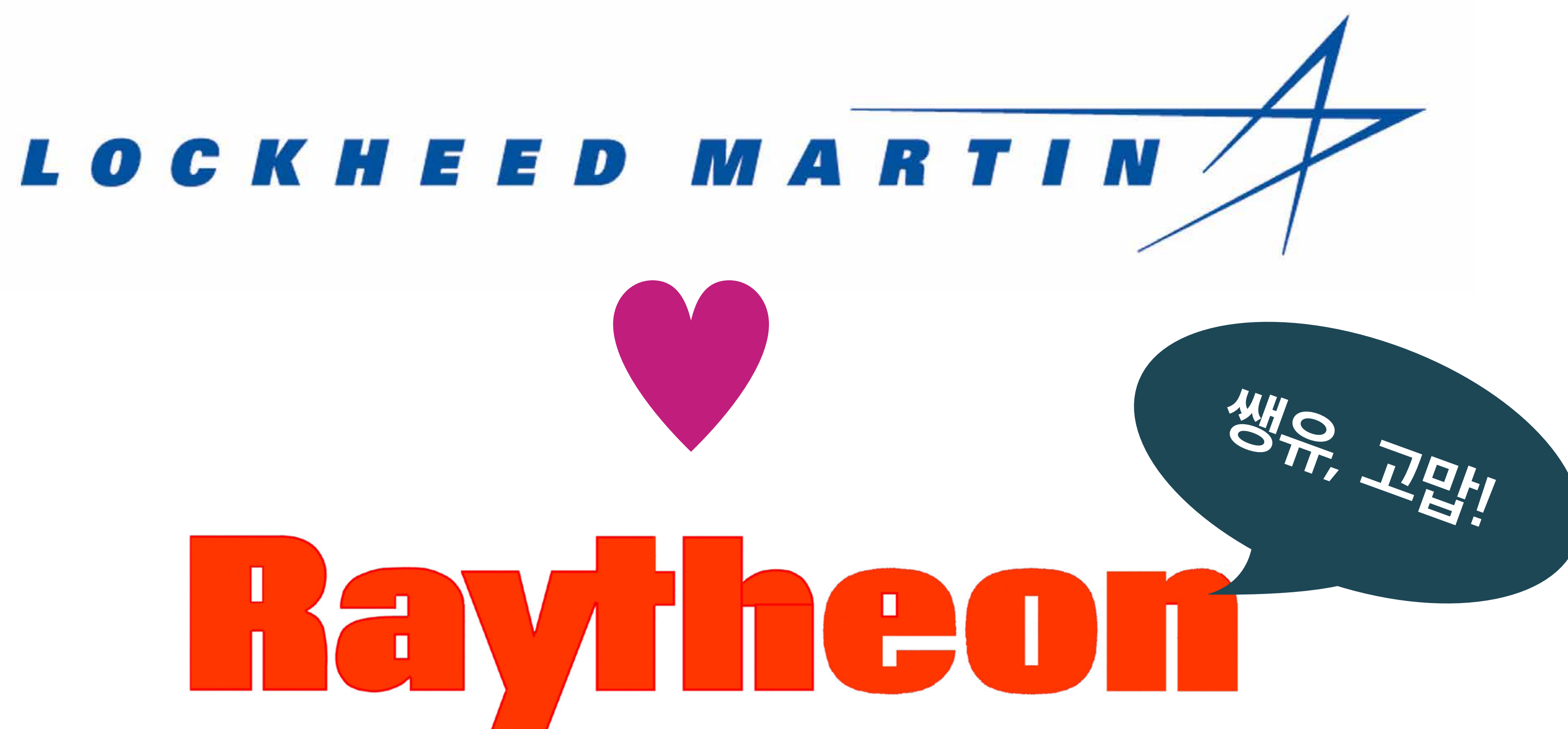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MD)의 핵심 무기.

미국은 지금까지 MD 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어왔고, 한국과 일본이 이에 동참해주기를 꾸준히 바라왔습니다.

사실상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마일 MD에 참여하는 건, 한국이 미·중 갈등과 군비 경쟁의 희생양이 되겠다는 결정!

사드는 남북 간 거리가 가까운 한반도에선 군사적 효용성이 낮습니다. 아직 개발이 다 완료되지도 않았고, 각종 결함이 줄줄이 보고되는 무기죠.

사드 배치와 한반도 위기, 누가 웃고 있는가?



사드 배치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사실!

전 세계 매출 1위 무기 회사인 록히드 마틴과 4위 레이시온이 사드 체계를 생산합니다.
이들은 사드를 비롯해 패트리엇 미사일, SM-3 요격 미사일 등 MD에 속하는 무기들이
더 많은 곳에 배치되고 더 많이 팔리기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한국은 록히드 마틴의 대표적인 호갱!

박근혜 정부(2013~2016년)의 록히드 마틴 무기 도입 계약액은 약 123억 달러(약 14조 원!)
가장 대표적인 것이 7조 원이 넘는 차기 전투기 F-35 도입 사업입니다.

방위산업전시회 = **살상무기전시회**

팔레스타인의 고통으로 돈을 버는 이스라엘 전쟁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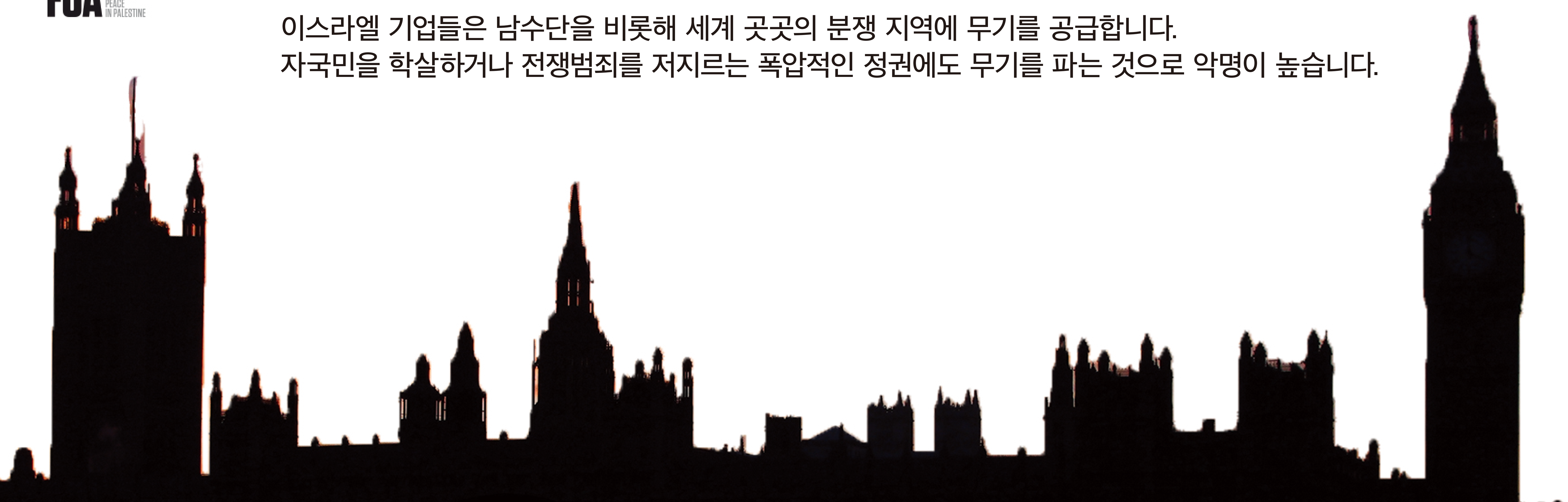
“전장에서 검증된” 제품

이스라엘 기업들은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 사용되는 무기를 팔아 수익을 올리고, 이를 “검증된” 무기라 강조하며 마케팅을 합니다.

FOA
FRIENDS OF
AL-AQSA
PEACE
IN PALESTINE

누군가의 고통은 나의 이익

이스라엘 기업들은 남수단을 비롯해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 무기를 공급합니다. 자국민을 학살하거나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폭압적인 정권에도 무기를 파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STOPARMINGISRAEL

CALLING ON THE BRITISH GOVERNMENT TO **STOP FUNDING ISRAELI WAR CRIMES** BY CANCELLING ITS ARMS EXPORT LICENSES TO ISRAEL

ADEX의 이스라엘관을 주목하세요

이스라엘 군수 산업의 폭발적 성장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산업은 바로 군수 산업.

6,800개의 군수 업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생산하는 무기의 75%는 수출용.

2002년 총 20억 달러였던 수출 규모가 2013년에는 Rafael의 수출액만 3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Elbit Systems 이스라엘 군용 무인기를 생산하는 주요 업체.

2014년 가자 공습과 서안지구 군사작전을 통해 전례 없는 수익을 거뒀습니다.

엘빗과 영국 탈레스가 합작하여 개발한 무인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향한 무차별 공격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인가요?"

"전에는 드론^{Drone} 무인기^{무인기}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드론이 제 머리 위를 날 때,
다음은 제 차례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빌라(8세). 미국의 드론 공격의 희생자 마마나 비비의 손녀.
2012년 10월 어느 오후, 68세의 마마나 비비는 밭일을 하다가
그녀를 직접 겨냥한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했다.

파키스탄 북서부 군디 칼라 마을. 출처 : 앰네스티 보고서

얼굴 없는 살인자, 무인기(Drone)



▲ 파키스탄 북서부를 공격하는 무인기



▶ 무인기 공격을 받은 파키스탄 북서부지역은 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아이를 잃고 절규하는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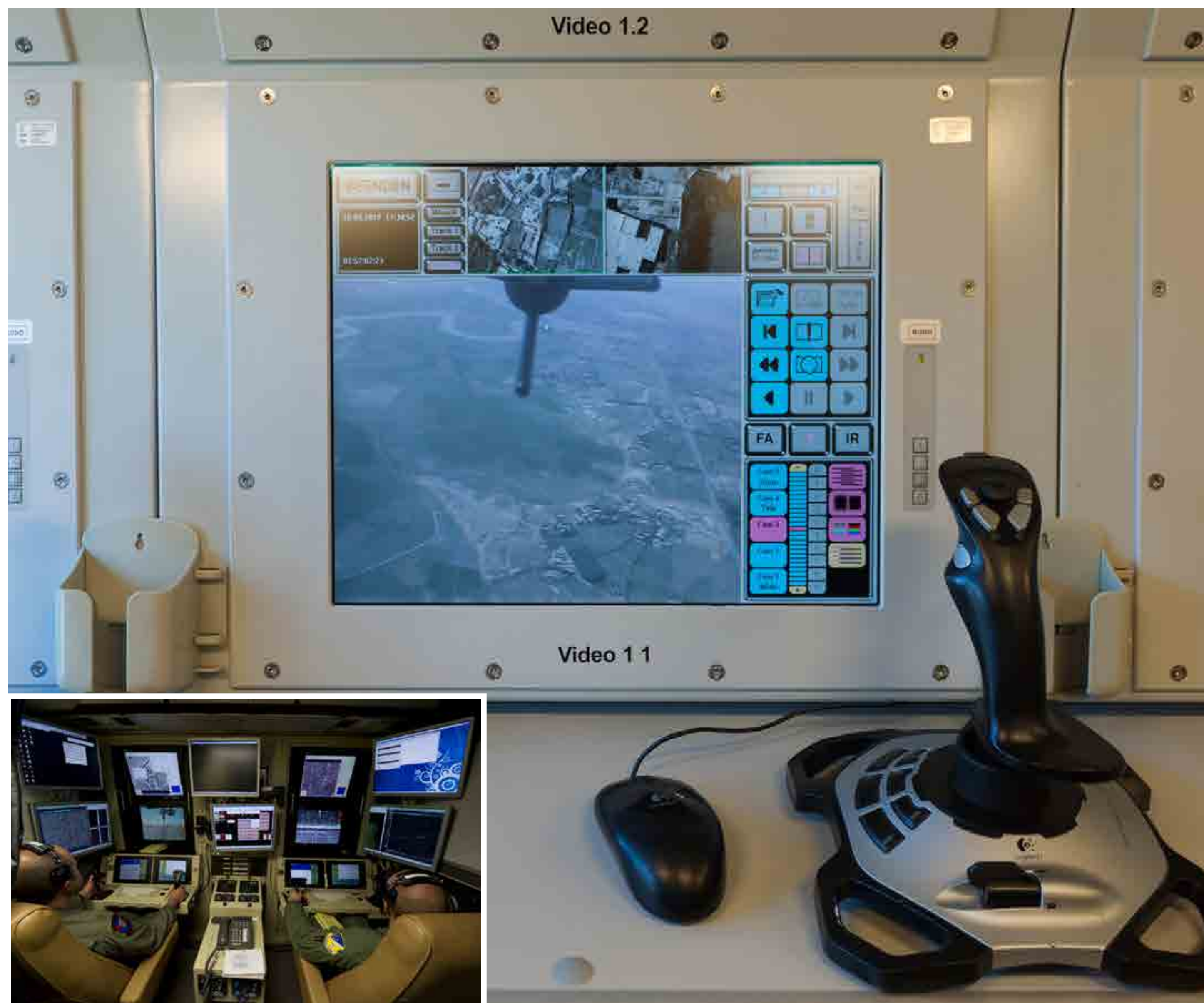
무인기란?

UAV(Unmanned Aerial Vehicles) 혹은 ‘윙윙 거리며 나는 수벌 같다’고 드론(Drone)이라고 불림. 조종사 탑승 없이 원거리 기지에서 원격 조종으로 작동하며 카메라를 장착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직접적인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목적으로 사용됨.

아군의 희생 없이 표적을 타격하는 미국 대테러전의 침병. 2009년 오바마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파키스탄 국경 지역으로까지 대폭 확대시키면서 “미국의 대테러전쟁은 무인기가 치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인기 사용이 급속도로 증가.

국경도, 예고도 없이 드론을 통해 진행되는 그림자 같은 전쟁은 국제법 위반, 주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반(反)드론, 반미 시위가 격화되고 있음.

인간성을 상실한 게임 같은 전쟁



- ▲ 무인기에 달린 카메라 전송화면. 마치 게임화면을 보는 듯 하다.
- ▶ 전장에서 수천km 떨어져 있는 기지에서 마치 오락게임을 하듯 무인기 조종이 이뤄지기 때문에 운영요원은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인명을 살상한다.

테러리스트와 민간인 구분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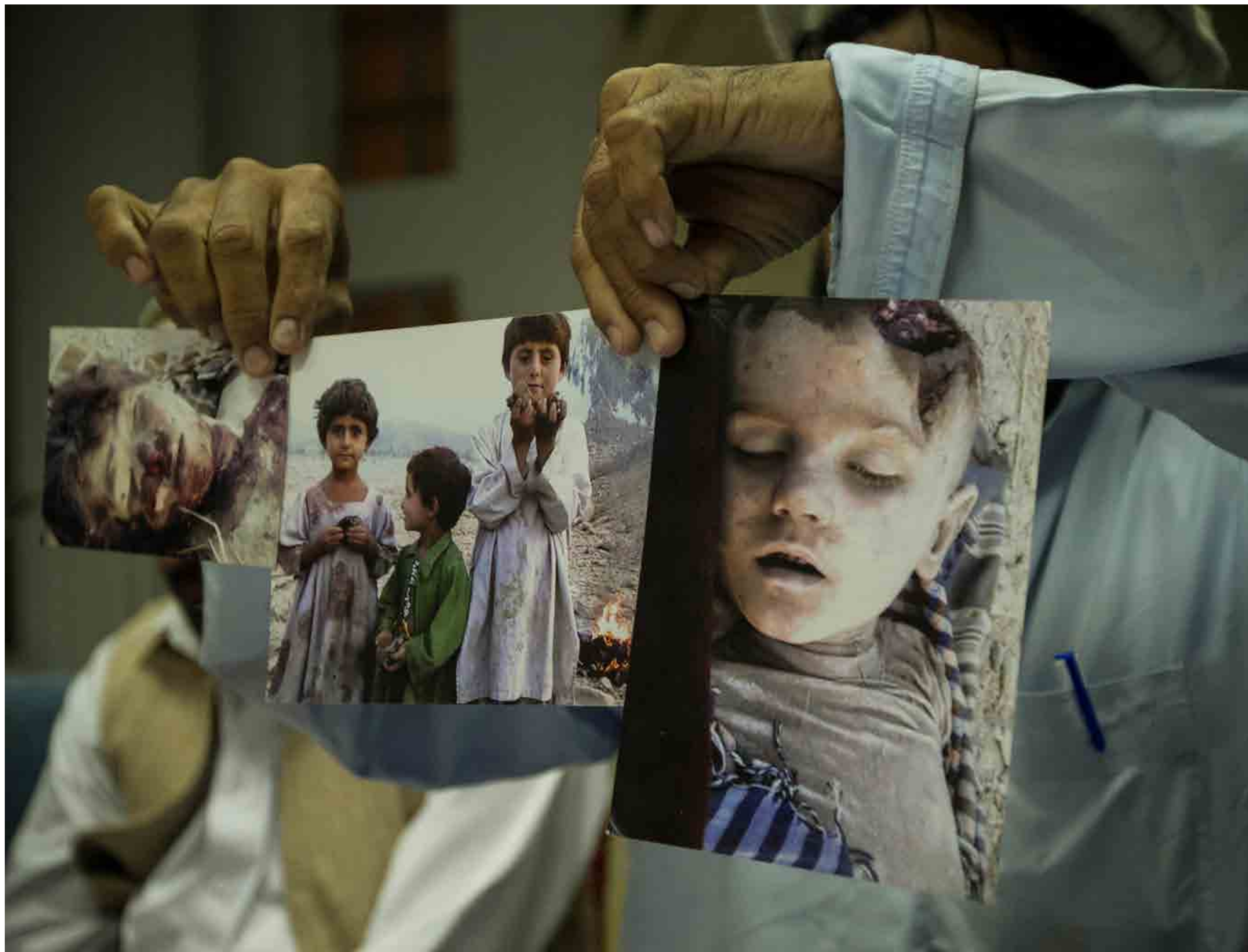
원격 화면만 보고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사전정보로 민간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다수의 민간인이 공격 당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긴장 높이는 더러운 드론

동북아 국가들 간에 무인 정찰기 '드론' 경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수천대의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도 무인 공격기 개발 착수(2013년)는 물론 2014년 무인기 분야에 예산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일본 역시 센카쿠 열도 등 영토분쟁 가능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무인기 도입 등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표적 1명당 민간인 49명 살해



◀ 무인기 공격으로 사망한 어린이들의 사진.
▲ 무인기 공격을 반대하는 미국 시민들.

드론 공격의 피해

미국의 파키스탄 북서부지역에 집중된 무인기 공습으로
지난 2004년 이후 파키스탄에서만 3천4백여 명이 드론에 살해되었습니다.

그 중 4분의 1이 민간인, 특히 176명은 어린이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공격 표적 1명이 살해될 때, 민간인이 49명꼴로 같이 희생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드론 공격으로 희생된 사람들

미국 무인기의 파키스탄 공격으로 사망한 민간인 중 신원이 확인된 317명 *(괄호 숫자는 나이)

Sons of Sher Zaman Ashrafkhel (10, 16)	Ziaur Rahman (17)	Azaz-ur-Rehman	Niamatullah	Abdul Waris (16)	Mashal	Ismael	Abdul Ghafoor	Mir Qalam
Wife, daughter and two female child relatives of Abu Hamza Rabia	Abdullah (18)	Mansoor-ur-Rehman	Shahzad	Darvesh (13)	Syed Noor	Gul Akbar	Jan Mohammad Mehsud	Saad Wali Khan
	Ikramullah (17)	Kushdil Khan	Ilyas	Ameer Said (15)	Jehanzeb	Mohammad Sheen	Dilawar	Muhammad Fayyaz
	Inayat ur Rahman (16) and Shahbuddin (15) brothers	Ubaid Ullah	Bashir	Shaukat (14)	Liaqat	Lewanai	Bakhan	Ayeesha (3)
Noor Aziz (8)		Rafiq Ullah	Wajid	Inayat ur Rahman (17)	Daraz	Mir Zaman	Noorullah Jan	Noor Janan
Abdul Wasit (17)	Sardar	Safat Ullah	Laiq		Sabil	Din Mohammad		Farhad
Hayatullah KhaMohammad Tahir (16)	Najid	Shams	Naeem Ullah (10)	Salman (16)	Mulvi	Malik Tareen	Ilyas	Samad
	8 grandchildren, two wives and elder sister of Jalaluddin Haqqani	Noor	Sabir	Fazal Wahab (18)	Ikramuddin	Noor Ali	Jamil	Salam
Maulvi Khaleefa		Baseer	Riaz	Rahman (13)	Wife of	Zare Jan	Farman	Sadar
Azizul Wahab (15)	Kamran	Naila (10)	Shaukatullah	Wali-ur-Rahman (17)	Mulvi Ikramuddin	Sadiq	Imran	Bakhtar
Fazal Wahab (16)		Gulzar	Yahya Khan (16)	Iftikhar (17)	Wife of	Mustaqeem	Latif	Atif (12)
Ziauddin (16)	Siddiq	Shamim	Rahatullah (17)	Inayatullah (15)	Baitullah Mehsud	Khangai	Wife & Son of Badr Mansoor	Samad
Mohammad Yunus (16)	Noorul	Majan	Khan (21)	Majid	Syed	Gulnaware	Sakeenullah (15)	Jamshed
Fazal Hakim (19)	Haq	Sarwar	Mohammad Salim (11)	Siraj	Wali Shah (7)	Faenda Khan	Shafiq	Daraz
Ilyas (13)	Zarmali	Zamir Gul's 3 sons & 2 daughters-in-law	Shahjehan (15)	Malik	Mautullah Jan	Dindar Khan	Bashirullah	Iqbal
Sohail (07)	Khan	Fatima (child)	Gul Sher Khan (15)	Gulistan Khan & 3 sons	Sabir-ud-Din	Umark Khan	Amir Khan	Noor Nawaz
Asadullah (09)	Muhammad	Nisar (child)	Bakht Muneer (14)	Noor Syed (8)	Kadanullah Jan	Wali Khan	Shairullah	Yousaf
Shoaib (08)	Sultan Jan	Naeem Khan (child)	Numair (14)	Masal	Razm Khan	Adnan (16)	Abidullah	Shahzada
Khalilullah (09)	Bukhtoor			Mehboob	Haris	Najibullah (13)	Fazle Rabbi	Akram Shah
	Gul	Two wives of Shams Ullah	Mashooq Khan (16)	Waris	Taj	Naeemullah (17)	Syed Noor	Atiq ur Rehman
Noor Mohammad (08)	Aman		Ihsanullah (16)	Wasim	Sanaullah Jan (17)	Hizbullah (10)	Shakirullah	Irshad Khan
Khalid (12)	Ullah Jan	Saed Kamal	Luqman (12)	Ihsan	Raza Khan	Kitab Gul (12)	Banaras	Amar Khan
Saifullah (09)	Imran Khan	Amanullah	Jannatullah (13)	Javed	Jamil	Wilayat Khan (11)	Fayyaz	Shabbir
Razi Mohammad (16)	Elda Jan	Sahib Rehman	Ismail (12)	Tahir	Mustafaa	Zabihullah (16)	Zaenullah Khan (17)	Kalam
Mashooq Jan (15)	Shakum	Sakhi Rehman	Taseel Khan (18)	Maulvi	Noor Gul	Shehzad Gul (11)	Asif Iqbal	Waqas
	Nasrullah	Sohrab Khan	Zaheeruddin (16)		Jaffar	Shabir (15)	Khaliq Dad	Bashir
Nawab (17)	Umar	2 sons,brother & 3 nephews (one 10) of Shera Deen	Qari Ishaq (19)	Nazir's wife, daughter-in-law, & sons Abdullah	Faraz	Qari Sharifullah (17)	Sadiq Noor	Abdul Jalil
Sultanat Khan (16)	Naeem		Jamshed Khan (14)		Musa	Shafiullah (16)	Wajid Noor (9)	Maulana Iftiqar
Ziaur Rahman (13)	Dil Nawaz	Shera Deen	Alam Nabi (11), brothers	& Abdul Latif, nephew Mohammad Shoaib	Kamal *	Nimatullah (14)	Khalid	Saeedur Rahman
Noor Mohammad (15)	Yousaf Ashraf	Bismullah, wife & 2 children	Qari Abdul Karim (19)	Tariq Dawar Khan	Malik Daud Khan	Shakirullah (16)	Matiullah	Khastar Gul
Mohammad Yaas Khan (16)	Naimatullah	Din Mohammad's son, nephew & 2 daughters	Rahmatullah (14)	Sabir	Ismail Khan	Talha (08)	Kashif	Mamrud Khan
	Taj Mohammad		Abdus Samad (17)	Ikram	Hajji Babat	Jamroz Khan	Zaman	Noorzal Khan
Qari Alamzeb (14)	Musa	Yahya		Mohib	Khnay Khan	Nephew & son of Awaz Khan	Waqar	Tariq Aziz
Ghulam Nabi (21)	Mohammad Khaleel	Samin	Siraj (16)	Zahid	Gul Mohammed and his son	Akbar Zaman		Waheed Khan
			Saeedullah (17)			Zahidullah		



“악몽같은 순간이었어요”

리비아의 14살 소년 아이만 압둘 라티프(Ayman Abdul Latif)는
집밖에서 놀던 중 불발된 확산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만진 순간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이 발생했지요.
라티프는 두 손을 잃었고 몸통과 사지는 파편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죽음의 비 확산탄

▼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투하된 엄청난 수의 확산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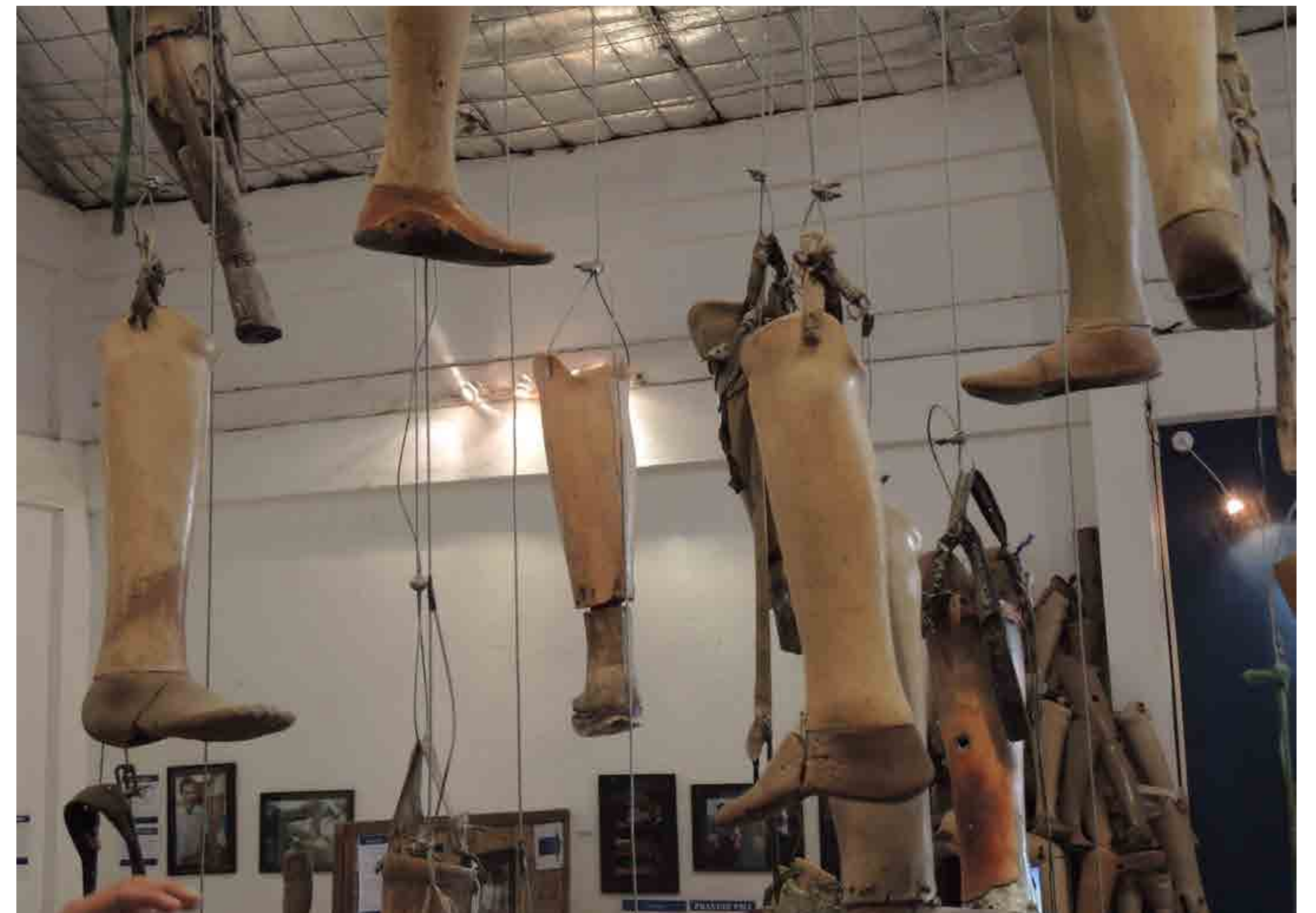


확산탄(Cluster Bomb)이란?

- 확산탄 또는 집속탄, 모자(母子)탄, CBU(Cluster Bomb Unit)
- 한 개의 확산탄 안에 수십, 수백 개의 소폭탄이 가득 채워져 있어 공중에서 터지면서 안에 들어있는 작은 폭탄들이 흩어지며 연쇄적으로 폭발

- 넓은 지역에서 다수의 무차별 살상과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인살상용 산탄형 폭탄
- 확산탄으로 인한 사상자의 98%가 민간인
- 보통 축구장 3~4배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며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
- 폭발하지 않은 불발탄은 이후에도 오래도록 남아있다가 지뢰처럼 작용

불발탄 문제 외면하는 **한국**



라오스는 전세계 가장 많은 확산탄이 투하된 지역이다. 이곳에는 아직도 다량의 불발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불발탄으로 다리는 잃은 사람들을 상징화한 의족 전시. (라오스 COPE Center, 확산탄의 문제를 알리는 전시관)

불발탄의 문제는 기술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한국은 전세계의 확산탄 금지 및 폐기 노력에 역행하여 오히려 확산탄을 **생산·수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 한국정부는 기술적 발전으로 불발탄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전상황에서 불발률은 10%가 넘기도 하며, 1%의 불발탄 또한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 실제 2006년 레바논 남부에는 약 400만발의 확산탄이 뿌려졌는데 1%의 불발률이라 하더라도 이미 4만발의 불발탄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 해도 무차별적으로 인명을 살상하는 확산탄 자체의 비인도성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 확산탄으로 발생하는 사상자의 98%는 민간인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이미 폐기하기로 결정된 무기를 한국이 생산하여 수출까지 하는 것은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용산 전쟁기념관에는 한국산 확산탄이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전쟁과 같은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
확산탄이라는 엄청난 무기를 보유한다면서,
한국산 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시민들이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요?

확산탄 생산 기업, **한화**와 **풍산**



한화 MLRS(다련장 로켓시스템)용 로켓탄과 헬기, 항공기에서 투하되는 확산탄을 생산,
70mm 다련장 개발, 차기 다련장 개발 진행중. 2008년 파키스탄에 확산탄 수출한 것으로 추정

풍산 주로 대포에 쓰이는 확산탄을 생산, 2004년 파키스탄과 공동생산 계약을 체결

- 이 두 기업은 세계 8대 확산탄 생산기업입니다.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들은 한화와 풍산 두 회사를 확산탄을 생산하는 비윤리적 기업이란 이유로 투자대상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한국의 금융기관, 기업들 또한 확산탄 생산기업인 이 두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의 목숨을 노리는 무기를 판매해 누군가는 돈을 버는 비윤리적이고, 잔인한 일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자랑스러운 무기, 다련장 로켓? MLRS



민간인 대량살상으로 악명높은 확산탄 사용무기

- 다련장 로켓시스템은 지대지 로켓 및 유도탄 사격체계로서, 한국 육군이 가진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화력무기입니다. 다련장 로켓탄 1발은 축구장 3개 면적(6000평)을 일시에 초토화시킵니다. 다련장 로켓시스템 1개 포대(3문)가 일제 사격을 할 경우 1분 안에 2만3000개가 넘는 소폭탄을 목표지역에 쏟아 붓습니다.
- 다련장 로켓은 시리아 내전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양산(93%가 민간인)해 시리아에서 사용된 '더러운 무기' 12가지(재래식무기)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 한국은, 다련장 로켓시스템을 점점 공격적 전략의 일환으로 증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K-136 구룡, M270, M270A1 MLRS, 에이태킴스 등을 이미 갖추고 있는데도

새로운 차기 다련장 로켓시스템을 국산 개발·양산하고 배치하려고 합니다.

- 한국은 2009년부터 차기 다련장 로켓시스템 사업개발을 시작하여 2014년 전력화를 목표로 70대 양산에 총 사업비 1조 9269억원을 들이고 있습니다. 탄약 소모량이 워낙 많은 다련장 로켓은 전력 유지비용만도 엄청납니다. 현재 M270A1 다련장이 대당 57억원, 로켓 탄두 1개가 3000만원이 넘는 점을 비추어볼 때 차기 다련장 70대에 들어갈 로켓 수량을 생산하려면 끊임없이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비인도성을 이유로
이미 폐기하기로 한 확산탄에
천문학적 예산을 써야 하나요?**



“그들은 우리에게 총 쏘는 법, 사람들 심장과 발을 겨누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하얀색의 가루가 섞인 밥과 빨간색 가루가 섞인 소스를 먹어야 했습니다.

주사도 맞았습니다. 저는 세 번이나 맞았어요.

주사를 맞고 가루가 섞인 밥을 먹으면 저는 모터가 달린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선생님을 위해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적들은 개처럼 보였고, 제 머릿속에는 온통 그들을 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 말리 세구아에서 포로로 잡힌 한 소년병의 이야기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한국지부 홈페이지 인용)

민간인 살상 제조기 ‘소형무기’

소형무기에 의해

매년 50만명 사망



80% 아동과 여성

1일

1,300명 사망

3,000명 심각한 부상

현대 분쟁의 민간 사상자의 90%가
소형무기에 의해 발생함

소형무기란?

- 소형무기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권총, 기관단총, 소총, 기관총 유탄발사기, 산탄총, 로켓추진유탄발사기 및 휴대용 미사일 등의 소형무기와 경무기를 지칭합니다. 지구상에는 현재 8억7천만 개의 소형무기가 있으며 매년 약 800만개가 소형무기시장으로 진입되고 있습니다.
- 현대 분쟁의 민간 사상자 90%가 소형무기에 의해 발생하며, 그 중 80%는 여성과 아동입니다.

- 소형무기는 다른 무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부피가 작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불법 거래량(1조7백억 규모, 전 세계 무기 거래량의 10-20% 내외로 추산)이 많으며, 전 세계의 분쟁지역으로 밀반입되어 연간 50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Global issue, small arms survey).

무기는 어떻게 국경을 넘어 분쟁지역으로 흘러가는가?



우크라이나에서 시에라리온까지

국경을 넘어 분쟁지역으로 흘러 들어간 무기는 무력분쟁에 동원된 수만명의 소년병의 손에 쥐어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무기는 어떻게 국경을 넘어 분쟁지역으로 흘러 들어가는 걸까요?

- 무력분쟁과 무장폭력으로 인해 1분마다 1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 2,600만 명의 사람들이 무력분쟁으로 인해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 불법 무기거래로 어린 아이들의 손에 무기가 쥐어지고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 수천, 수백만 명의 사망자, 부상자가 발생하는 분쟁지역으로 끊임없이 공급되는 무기의 출처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아이들은 총을 들게 되었을까?



사진 속 어린이들이 쥐고 있는 것은 장난감 총이 아닙니다. 실제 무기입니다.
군대체험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살상무기를 직접 조작하고 겨냥해보는 모습입니다.



살상무기를 체험하고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교육이 어린이들의 정상적인 성장과 사회의 평화에 도움이 될까요?

- 어린이들은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에 이끌려 병영캠프에 참가합니다. 캠프에서 집단적으로 살상용 무기(서바이벌 게임 등)를 체험하고, 적의 개념을 강조하는 안보 교육을 받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무기가 가진 폭력성과 대인살상이라는 본질을 외면하게 하고, 무방비의 어린이들에게 살상무기를 직접 체험하도록 유도합니다. 최근 5년간 병영캠프를 다녀온 초·중·고생은 11만 1397명에 달합니다.
- 18세 이전까지의 모든 교육에서 폭력과 적개심을 조장하는 내용은 국제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됩니다. 더구나 폭력성을 이유로 총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내용의 서든어택, 스페셜포스와 같은 온라인 게임에도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안보교육은 정부 정책과도 모순됩니다

살상무기 보러 가시나요?



최첨단 사양의 살상무기 보러 가시나요?

더 잘 죽이는 무기에 환호한 나머지 아무 거리낌 없이
무기전시회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나요?

총과 탱크, 각종 최신무기를 만지작거리는 어린이에게 이 무기가 어떤
살상무기인지, 무기가 사용되는 분쟁 속에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떤
고통을 주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무기에 환호하는 사회

정부는 경제적 이득만 가져온다면 무기수출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무기산업을 장려하고 무기수출 대국이 되는 것을
국정과제로 내세웁니다. 무기생산 기업들은 사람 죽이는 무기라는
본질을 가리고 있으며 무기산업을 ‘첨단기술’이라는 화려한 수사로
포장합니다.

방위산업전시회 = 살상무기전시회

방위산업전시회 = 살상무기전시회



무기전시장의 최첨단 무기들은 실제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터전을 파괴한다

무기산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국의 무기산업 육성 정책 수출무기 = 살인무기

‘방위’란 ‘적의 공격이나 침략을 막아서 지킨다’는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방위산업전시회’에 전시되는 무기들은 방어적 목적의 다소 선량한 수단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방위산업전시회에 전시되는 무기들은 모두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살상무기들입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 수출품목이란 이름으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무기는 결코 살인도구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역대 한국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전략 산업, 수출주력사업으로 육성해왔습니다. 또한 무기산업의 ‘비즈니스 장’을 제 공한다는 차원에서 정부는 꾸준히 대규모 무기전시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방위 산업전시회’라고 불리는 이 전시회에는 전 세계의 대표적 무기제조 업체들과 국방 관계자들이 참가해 엄청난 규모의 무기를 전시하고 거래합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는 결국 지구 어딘가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 도구가 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무기사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10만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낸 시리아 내전이 계속되는 이유는 바로 정부군과 반군에 끊임없이 무기를 제공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분쟁지역에 무기를 적극 수출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 무책임한 일입니다.

국산 무기개발은 언제나 바람직한가?



정부는 한국이 생산하는 무기가 국제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무관심하다. 수주결과를 치켜세우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홍보하는 데 그칠 뿐 무기수출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무기산업 육성은 윤리적으로 옳은가?

한국이 무기 수출 대상국가로 삼고 있는 나라들에는 터키, 인도네시아, UAE,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분쟁국가이거나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있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분쟁과 고통에 기생할 수밖에 없는 방위산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겠다는 한국 정부의 무기산업 육성정책은 과연 윤리적으로, 국제 평화원칙에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국가로서 국제 평화를 추구하는 헌법을 가진 대한민국이 무기 수출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평화, 무기로는 이뤄낼 수 없습니다

과거 한국은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이 오늘날 국제사회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기보다 무기공급을 통한 경제적 이득만 취하려 하는 것은 과거 쓰라린 경험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한반도는 언제 다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정전체제에 놓여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위기에 닥쳤을 때 다른 국가들이 이를 무기수출의 기회로만 여긴다면 긴장관계는 더욱 고조되고 분쟁 발발 가능성을 높여 결국 한반도의 평화는 보장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공격적 무기도입은 과연 한반도 평화를 가져 오나요?



한국 정부는 능동적 억제전략에 기초해 차기 전투기 사업으로 스텔스 기능의 5세대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의 레이더 망에 포착되지 않게 적진에 침투할 수 있도록 하는 스텔스 기능은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평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의 월등한 전력

한국 육군은 북한에 비해 월등히 우세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수적으로는 북한이 많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노후해 질적으로 한국군 무기가 훨씬 우세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능동적 억제전략에 따른 막대한 공격형 무기도입

국방부는 2013년 ‘능동적 억제전략’을 발표하고 킬체인 구축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일련의 압도적 공격 능력을 다양하게 갖추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대형 공격 헬기 도입, 이지스함 구축, 차기 전투기 사업 등 대규모 첨단무기 도입 사업들이 그것입니다.

공격형 무기 도입과 선제 타격 개념, 안보가 아니라 대립만 부추길 위험

공격형 무기의 대량 획득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에 위배될 수 있으며, 특히 ‘선제 타격’ 전력은 휴전선을 넘어 북에 들어가 타격한다는 것으로 국지전 하에서도 전면전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방어를 위한 적정 수준의 군사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없이 진행되는 공격적 계획과 첨단무기들의 전략적 구축은 한반도 평화 노력이 아니라 군사적 대립을 유도할 뿐이며 동아시아의 지역적 갈등 역시 부추기게 할 것입니다.